



난임 여성의 난임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송보경*, 지영주**

*창원한마음병원,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연구 배경

난임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난임 치료의 과정은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소진이 수반되어 그로 인해 난임 여성들은 다양한 심리, 사회적 문제들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난임 여성에 관한 국내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난임 여성의 난임 관련 삶의 질에 대한 다각적이고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난임 클리닉에서 난임 치료를 시행 중인 난임 여성의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난임 여성의 난임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추후 난임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C시에 소재한 종합병원 산부인과에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내원한 난임 여성 중 본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131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공한 후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및 난임 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부부친밀감, 배우자지지, 사회적지지, 난임 스트레스, 우울 및 난임 관련 삶의 질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산출하였고 일반적 특성 및 난임 관련 특성에 따른 난임 관련 삶의 질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 후 Schéffe test를 이용하여 사후 검증하였다.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영향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표 1> 일반적 특성 및 난임 관련 특성에 따른 난임 관련 삶의 질 차이

특성	구분	Mean ± SD	t or F	p
본인 나이	34세 미만	89.85 ± 15.48	0.64	0.426
	34세 이상	89.37 ± 15.72		
배우자 나이	36세 미만	91.39 ± 13.42	4.82	0.03
	36세 이상	87.97 ± 17.16		
결혼 기간	1년 미만	89.29 ± 23.83	0.39	0.813
	1년 이상-3년 미만	90.92 ± 13.78		
	3년 이상-5년 미만	89.75 ± 16.92		
	5년 이상-7년 미만	88.38 ± 15.50		
학력	7년 이상	85.43 ± 17.54	0.17	0.842
	고졸 이하	87.43 ± 15.26		
직업	대졸(전문대 포함)	89.82 ± 15.78	0.38	0.54
	대학원 이상	88.50 ± 14.94		
종교	유	93.04 ± 15.52	0.94	0.336
	무	84.45 ± 14.28		
월수입	유	89.60 ± 14.94	1.5	0.219
	200만원 미만	83.00 ± 6.48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86.27 ± 15.45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92.41 ± 14.95		
난임 원인	여성 요인	90.14 ± 15.54	1.83	0.145
	남성 요인	89.07 ± 14.81		
난임 치료 기간 (개월)	양측 요인	80.00 ± 31.45	0.31	0.578
	원인 불명	91.79 ± 14.16		
치료비 부담	12개월 미만	93.00 ± 15.91	8.81	<.001
	12개월 이상	87.71 ± 15.14		
	약간 부담a	83.69 ± 15.35		
	중심 부담b	88.12 ± 15.22		
유산 경험	관찮다c	97.81 ± 13.08	1.96	0.124
	무	91.40 ± 14.28		
	1회	87.00 ± 16.20		
	2회	86.38 ± 14.93		
아이를 가장 원하는 사람	3회 이상	79.38 ± 25.12	0.35	0.841
	본인	88.18 ± 15.78		
	배우자	90.63 ± 16.15		
	친정 식구	92.67 ± 14.36		
치료에 부담 요인	시집 식구	91.72 ± 15.58	2.11	0.069
	기타	91.00 ± 14.81		
	남편의 비협조	87.20 ± 13.22		
	경제부담	88.97 ± 15.18		
직장생활 부담	시집식구의 비협조	69	0.35	0.841
	직장생활 부담	95.41 ± 16.76		
	심리적 부담	86.56 ± 15.02		
기타	98.50 ± 9.77			

<표 2> 부부친밀감, 배우자지지, 사회적지지, 난임 스트레스, 우울 및 난임 관련 삶의 질 정도

변수	하위변수	문형수	Mean±SD or n(%)	최소	최대	Item Mean±SD	척도범위
부부친밀감		15	57.85 ± 7.80	42	75	3.86 ± 0.52	1-5
		20	76.59 ± 9.58	44	94	3.83 ± 0.48	
배우자지지	정서적지지	6	23.20 ± 2.82	10	26	3.87 ± 0.47	
	정보적지지	6	18.16 ± 2.50	7	29	3.03 ± 0.42	1-5
	평가적지지	4	5.34 ± 2.09	4	16	1.34 ± 0.52	
	도구적지지	4	16.82 ± 2.50	7	20	4.21 ± 0.63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11	45.06 ± 6.36	30	55	4.10 ± 0.58	
	사회적갈등	6	23.50 ± 3.87	15	30	3.92 ± 0.65	1-5
난임 스트레스		5	21.56 ± 3.50	11	25	4.31 ± 0.70	
		46	134.14 ± 29.44	58	210	2.92 ± 0.64	
	사회 영역	10	27.07 ± 9.41	10	57	2.71 ± 0.94	
	성 영역	8	19.62 ± 7.05	8	37	2.45 ± 0.88	
	관계 영역	10	25.53 ± 6.69	14	43	2.55 ± 0.67	1-6
	아이가 없는 일상에 대한 거부 영역	8	21.62 ± 7.19	8	48	2.70 ± 0.90	
우울	부모됨의 필요성 영역	10	40.31 ± 9.38	15	58	4.03 ± 0.94	
	우울군	20	9.26 ± 11.77	0	68	0.46 ± 0.59	0-4
난임 관련 삶의 질	우울(77.9%)	102(77.9%)					
	우울군	29(22.1%)					
		24	89.56 ± 15.56	40	118	3.73 ± 0.65	
	정서 영역	6	21.93 ± 5.19	9	40	3.66 ± 0.87	
	심신 영역	6	21.24 ± 5.77	6	30	3.54 ± 0.96	1-5
관계 영역		6	24.27 ± 3.30	17	30	4.05 ± 0.55	
	사회 영역	6	22.12 ± 4.14	6	30	3.69 ± 0.69	

<표 3> 부부친밀감, 배우자지지, 사회적지지, 난임 스트레스, 우울 및 난임 관련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

변수	r					
	1	2	3	4	5	6
1	1					
2	.37**	1				
3	.38**	.59**	1			
4	.43**	.40**	.46**	1		
5	-.74**	-.45**	-.39**	-.36**	1	
6	-.36**	-.33**	-.32**	-.32**	-.32**	1

Note: 1=난임 관련 삶의 질, 2=부부친밀감, 3=배우자지지, 4=사회적지지, 5=난임 스트레스, 6=우울, **p<.05, ***p<.001

<표 4> 난임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변수	B	SE	β	t	p	T	VIF
(상수)	125.31	12.67		9.89	<.001		
치료비	-1.93	2.14	-.06	-0.90	.369	.60	1.68
부담†	-2.66	2.48	-.08	-1.07	.286	.55	1.82
부부친밀감	-0.13	0.15	-.07	-0.91	.363	.53	1.89
배우자지지	0.06	0.13	.04	0.46	.647	.41	2.45
사회적지지	0.40	0.16	.16	2.59	.011	.70	1.44
난임 스트레스	-0.31	0.04	-.58	-8.48	<.001	.60	1.66
우울	-0.38	0.09	-.28	-4.35	<.001	.66	1.51

R² = .68, Adjusted R² = .64, F=15.19, p<.001, Durbin-Watson=1.92

† 터미변수: 치료비 부담(0=관찮다, 1=약간 부담, 2=매우 부담); T=Tolerance,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지지와 높을 수록 난임 여성의 삶의 질은 높으며, 난임 스트레스와 우울은 난임 여성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난임 여성의 삶의 질 저하와 관련된 문제는 더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없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난임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지지 체계의 마련과 난임 스트레스 및 우울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등이 요구된다. 이는 증가하는 난임 여성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